

아시아 전자연맹(AEU)총회

— 15대회장으로 본회 이상원 부회장 선출 —

— 한국의 전자, 정보산업의 세계적 위상제고 일조 —



제15차 아시아 전자연맹(AEU)총회가 22, 23일 서울 잠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 이 이상원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부회장이 앞으로 2년간 AEU를 대표하는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아시아 차원의 전자연맹을 이끌어 나갈 회장에 한국인이 민정일치로 선정된 것은 국내전자산업의 위상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 AEU 활동

AEU는 전자·정보·통신산업과 관련한 국가간 또는 다자간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가맹회원국간 협력 증진 사업을 추진키 위해 지난 68년 설립된 민간 국제협력 기구로서 현재 한국과 일본·대만 등 14개국 전자·정보통신관련 단체와 준회원 4개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가 정보망(NI)구축을 통한 회원국간의 협력사업을 비롯하여 정보교환·기술자교육, 전자·통신·정보 및 관련과학과 기술분야의 다국간 협력사업 등을 수행중에 있다.

이번에 21세기 디지털 혁명 국제 기술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것처럼 회원국들의 기술

공유 및 교류를 위해 기술세미나를 1년에 2개국씩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것도 AEU 활동 중에 중요한 부분이다.

■ AEU 회장 피선 의미

AEU는 지난 30여년간 전자·통신 부문에서 아시아 국가간 인적교류 및 기술협력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79년 이후 우리나라가 두번째 회장국으로서 아시아 전자·정보산업 부문에서 회원국간 전자·정보산업 부문의 상호 협력 관계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각국의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와 병행하여 범세계 정보통신망의 구축이 현실화 되는 21C를 앞두고 AEU 회장으로서는 아시아 역내는 물론 범세계 국가들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각종 활동을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AEU 회장으로서의 각오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서로 다른 발전 단계의 정보통신 기반구조를 지닌 회원국들로서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아시아 지역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력의 구현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가갈 계획이다.

앞으로 2000년대의 아시아 지역은 세계 전자산업을 꽃 피울 요충지이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간의 정보통신 분야의 쌍무 및 다자간 협력 증진 사업에 더욱 역점을 둘 생각이다.

회원국간 유대강화와 역할 증대를 위하여 더 한층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한국 전자·정보 산업의 세계적 위상제고에도 일조하도록 노력하여 아시아 전자기술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 향후 국내 전자산업 과제

우리 전자·정보산업은 21세기를 앞두고 디지털 혁명에 바탕을 둔 급속한 기술혁신 등으로 많은 변화를 맞고있다.

즉, 컴퓨터·통신기술의 발달은 경제활동 전 분야에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본격적 정보사회를 실현시켜 가고 있다. 이와관련 우리

전자산업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산업구조 고도화

진흥회는 우리 전자·정보산업의 성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용 기기에서 산업용 첨단 고부가가치 상품 위주로 산업구조 조정, 기술력 제고, 범 세계적 경영, 전략적 제휴 등의 과제를 성실히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자·정보산업 구조 및 조직으로는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어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진지·정보산업의 기반 강화

국제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민간의 기술능력 획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 지원체제의 마련과 정보통신의 융합 등 산업발전 영향에 부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국제 산업협력 및 세계화 지원 정책의 강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3) 해외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

또한 WTO 체제 출범과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세계 시장의 통합 및 후발경제권의 부상 등 국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을 수립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즉 무역마찰 회피를 위한 현지생산, 산업용기기 및 부품의 OEM생산, 선진국과의 공동연구 기술개발 투자확대, 국제 수평분업화 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